

존재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당신은 이 지구가 얼마나 오랜 역사를 가졌는지 전혀 연구해 낼 수 없다. 많은 일이, 말하고 들으면, 마치 신화(神話)와도 같다. 나는 나의 수련하는 사람에게 설법해 주며 여러분이 받아들일 수 있게끔 한다. 왜냐하면, 법은 속인에게 말해 주는 것이 아니며 속인 사회에 말해 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방금 물을 말하면서 바다를 언급했다. 사실 그 바다는 무엇인가? 바다(海)와 물(水)의 개념은 전혀 같은 일이 아니다. 단지 담수(淡水), 그것만이 물이고, 바닷물 그것은 사람이 물이라고 부를 뿐, 사실 그것은 다른 일종의 물질이다. 물은 생명을 창조하는 요소이다. 여러분이 알다시피 지구는 우주 중에서, 아주 작은 층차 중에서 본다면 그것은 먼지 한 알과 같다. 그렇지만, 방대한 신, 그의 체적은 무척 크다. 만약 그가 눈물 한 방울을 떨어뜨린다면 지구를 잠게 할 수 있다. 사실 그 바닷물은 바로 신의 한 방울 눈물이다. 내가 이렇게 말하면 듣기에 마치 신화를 말하는 것처럼 느껴질 것이다. 당신들이 한번 화학 실험을 해보라. 그 바닷물과 사람의 눈물 성분이 같은가 같지 않은가? 똑같은 것이다. 만약 당신의 눈물을 바닷물처럼 큰 체적으로 확대했을 때 당신이 보라. 그 속에 어떤 생물이 있는지? 그 속에 한 마리의 고래가 있을지도 모른다. 듣기에는 마치 농담 같지

法輪大法

美國西部法會講法

미국서부법회설법

李 洪 志

너무나도 크다. 내가 당신들에게 그렇게 크고 그렇게 높은 경지를 말해 줄 때 당신들이 돌이켜 생각해 보면, 이렇게 큰 우주 층차 또한 단지 넓고 넓은 천체 중의 한 알의 먼지에 불과한데, 그 지구가 다 무엇이고, 사람이 다 무엇이겠는가. 그렇지 않은가? 바로 사람 스스로 대단하다고 보며 아주 위대하다고 여길 뿐이다. 이 지구는 여러 차례에 걸쳐 새롭게 바뀐 것으로서 바로 이런 상황이다.

방대한 우주의 역사에서 이 지구는 여러 차례 바뀌었다. 그런데 어떻게 바뀌었는가? 지구의 가장 표면은 이 한 층의 물질로 구성된 것이고, 이 공간의 분자가 조성한 물질로 구성되었기에, 그렇다면 곧 이 공간의 물질로 만들어야 한다. 우주 중에 있는 이 공간의 각기 다른 천체는 모두 갱신하는 중이고, 모두 신진대사의 상태에 있다. 일정 범위의 천체가 해체된 후의 먼지나 찌꺼기를, 우주 중의 방대한 신은 이런 것을 수집 분류한 다음 새로운 지구를 만들어낸다. 지금의 과학자는 역사연구를 하고 지리연구를 하면서, 어느 물질은 지구에서 생긴 지가 얼마가 되었고, 지구는 얼마만 한 역사가 있다고 말하는데, 이런 방식으로는 전혀 알아내지 못한다. 왜냐하면, 어떤 물질은 지구로 형성되기 이전부터 그것은 아주 큰 한 덩이의 돌이었고, 대단히 큰 한 덩이의 천체였으며, 여기로 가져와 지구로 만들기 전부터 그것은 이미

수 있으므로 곳곳이 모두 압력을 갖게 된다. 그럼 그 지구는 무엇인가? 바로 하나의 압력덩어리다. 내가 말하는 그 썩은 사과와 뜻이 바로 이 이치이다. 이처럼 썩은 것을, 성결(聖潔)한 우주 중에 남겨두어 무얼 하겠는가? 버리자! 정말로 버릴 수 있다.

부처가 사람에게 자비하다는 이것은 지구와 가까이 있는 부처를 가리킨 것으로서, 그는 자비를 말한다. 극히 높은 층차의 신(神)에게 있어 자비란 무엇인가? 그는 자비마저도 집착임을 발견한다. 그가 자비한가, 자비하지 않은가? 그 역시 자비하다. 하지만 그의 자비의 경지·개념은 같지 않다. 바로 내가 말한 바와 같이 사유마저도 같지 않다. 그의 자비는 그와 가장 가까이 있는 중생에 대한 것으로서, 그는 그 아주 낮은 신마저도 속인과 마찬가지로 본다. 그럼 사람이 다 무엇이겠는가? 미생물, 세균보다도 못하다. 사람이 길을 걷자면 세균을 밟아 죽일 수 있는데, 누가 그것을 살생이라고 여기겠는가? 그렇지 않은가? 좋지 않은 것은, 그 대변과 같은, 똥 덩어리 같은 것은 내던져버리게 마련이다. 어디 무슨 자비하고, 자비하지 않은 개념이 있겠는가? 전혀 없다. 사람 자신이 스스로 대단하다고 여길 뿐, 더욱 높은 신의 눈에는 아무것도 아니다. 이 방대한 우주는, 생명이 존재하는 방식과 인식이 같지 않음으로써 경지의 차이가

美國西部法會講法

미국서부법회설법

李 洪 志

1999년 2월 21~22일, 로스앤젤레스에서

수 있음은, 이런 문제 역시 모두 해결하는 중이고, 나아가 많은 일이 이미 해결되었기 때문이다. 내가 오늘 말하는 것은 인류가 지금까지 발전해 온 일부 진상을 알려주는 것이다.

이 지구의 구성 역시 우리 인류가 상상하는 것처럼 그렇지 않다. 무슨 대폭발 이론에 의해 이 별을 형성했다고 하는데, 전혀 그런 일이 아니다. 어떻게 형성된 것인가? 지금 이 과학의 물질기초에 대한 인식, 생명기초에 대한 인식, 우주에 대한 인식은 전부 잘못된 것이다. 신이 이 지구를 만들었다. 어떻게 만든 것인가? 여러분이 아다시피 이 지구는 이미 여러 차례 반복되었다. 각 종교 중에서도 모두 겁난 문제를 말한다. 만약 이 지구 자체에 겁난이 일어나고 이 인류가 좋지 않게 되어 훼멸되면, 이 지구에서 훼멸되면, 이것은 대겁(大劫)이다. 또 이것보다 더욱 큰 겁(劫)이 있다. 바로 이 지구 전체를 버리는 것이다. 왜냐하면, 사람은 육도윤회 하며 전생(轉生) 중에서 업력을 지니고 가기 때문이다. 나쁜 짓은 하면 할수록 업력은 더욱더 커지는데, 그가 식물로 전생 된다면 그 식물마저도 업력으로 덮이게 된다. 사람 눈으로는 볼 수 없는데, 업력은 가장 큰 한 층 분자 공간보다 아래에 존재한다. 그러면 사람은 식물·물질·동물로 전생 되고, 윤회 중에서 또 흙·돌로도 전생 될

은 그것이 또 방법을 찾아 대체해야 하는데, 바로 오늘날 인류가 취하려고 하는 ‘클론’이라는 방법이다. 신은 사람을 책임지고 있다. 만약 신이 사람을 책임지지 않는다면 사람에게 생명의 요소를 주입하지 않았을 것이다.

다시 말해서 당신 이 사람이 세상에 살고 있음은 당신의 이 육신이 있기 때문이 아니며, 당신 어머니가 당신의 이 육신을 당신에게 주었다고 하여,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이는 당신에게 당신의 元神(웬선)과, 당신의 모든 기타 신(神)의 존재가 있어 당신으로 하여금 살 수 있게 하기 때문이다. 그럼 사람이 죽은 다음 여기에 놓아두어도 역시 이 신체인데, 왜 그것이 살지 못하는가? 바로 모든 元神(웬선)이 다 떠났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서 이 사람이 태어날 때 만약 그에게 신(神)을 주지 않고, 그에게 모태에 들어가지 못 하게 한다면 그는 태어나도 죽은 것이나 마찬가지이다. 어떻게 하는가? 외계인이 들어가게 된다. 이것이 바로 그것이 사람을 대체하는 최종적인 방법인데, 바로 복제인간이다. 사람은 외계인에게 이용당하여 자신을 훼손하고 있지만, 아직도 알아차리지 못한 채 이 과학을 수호하면서 인류를 훼손하고 있다. 장래에 복제인간이 나오고 복제인간이 무리로 나오면, 인체의 태(胎)는 모두 외계인이 들어가게 되어 나중에는 사람이 없어진다. 물론, 내가 오늘 말해 줄

미국서부법회설법

李洪志

(1999년 2월 21~22일, 로스앤젤레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수)

본래 이번 회의를 서부지역의 국부적인 심득교류회로 열려고 생각했다. 목적은 서부지역의 수련생들이 더욱 잘 수련할 수 있게끔 그런 더욱 좋은 환경을 마련해주기 위한 것이었다. 그것이 지역 법회의 성격에 속하고, 주요하게는 그들 이곳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기에, 더 많은 사람에게 말하지 않았으며, 세계 각지에 소식을 전하지 않았다. 더욱 주요한 원인은 내가 여러분에게 안정된 환경에서 어떠한 교란도 받지 않고 안심하고 수련하게 하려는 것이다. 지금 각 지역에 학회와 보도소가 많아 활동도 많다. 만약 내가 가는 곳마다 여러분이 모두 쫓아다닌다면 당신은 수련할 시간이 없어, 이 안정된 수련환경이 없게 되므로 당신의 수련에 좋은 점이 없다. 그러므로 나는 더욱 많은 사람이 곳곳으로 쫓아다니는 것을 바라지 않는다. 물론 여러분도 이런 뜻을 다 알지만, 사부가 보고 싶어 오곤 하는데, 이 심정을 나는 이해한다. 사실 당신이 수련을 잘하였다면 나를 만나기가

더욱 쉽다.

기왕 여러분이 온 바에, 우리는 서해안 수련생들에게 이 한동안의 수련 중에서 어떤 제고와 수확이 있었는지를 모두 편안한 마음으로 들어 보도록 하자. 그들의 발언과 심득체험 중에서 자신의 부족한 점을 보게 될 것이고, 우리로 하여금 수련 중에서 자신을 제고함에 더욱 잘할 수 있게 할 것이다. 여러분도 모두 자신을 총결산해 보고 부족한 점을 찾으며 서로 다그쳐 나가야 한다. 이것이 바로 우리 법회의 근본취지이다. 만약 우리 법회가 이런 역할을 하지 못한다면 개최할 수 없으며 영(零)과 같은바, 곧 그의 의미를 상실한다. 대법의 일체 수련형식, 내가 하는 일체는 모두 여러분이 되도록 빨리 제고하여 올라오게 하기 위한 것이다. 만약 그렇지 않고 이 목적에 도달하지 못한다면 나는 이러한 일을 하지 않는다. 물론 당신들의 현재 수련형식 중에는 연공 외에 또 홍법의 형식이 있다. 이것은 내가 그 해에 법을 전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줄곧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남겨놓은 것으로서, 대단히 중요할 뿐만 아니라, 확실히 아주 좋은 역할을 할 수 있다. 그러므로 당신들의 법회는 각 지역에서 여전히 열어야 한다. 하지만 내 생각에 가장 좋기는 각 지역에서 지역성을 띤 소규모 법회를 여는 것이 비교적 좋을 것 같다. 만약 큰 법회라면 1년에 그렇게 한두 차례면 되고,

에도 이런 사람은 없었다. 이 사상(思想)이 있다면 곧 이 신체가 있게 마련이다. 여러분이 알다시피 당신 신체 속의 때 세포는 모두 당신이다. 당신의 대뇌는 때 세포 속의 대뇌와 연계되어 있다. 그렇다면 당신 신체의 무수한 세포 속의 사유(思維)는 전부 변이된 사람의 사상(思想)인바, 전반 신체가 전부 이러하다. 신이 사람을 사람으로 보지 않는 데는 또 이런 원인이 그 속에 있다. 사람이 이미 사람이 아닌데, 신이 그것을 제도해서는 또 뭘 하겠는가?

여러분이 알다시피 사람이 죽었다고 그가 정말로 죽은 것이 아니다. 가장 큰 한 층 분자 입자의 외각(外殼)이 탈락하였을 뿐, 분자 이하의 그 미시적인 입자로 구성된 신체 그 한 부분은 절대 죽지 않는다. 그것은, 마치 사람이 옷을 한 겹 벗는 것처럼, 분리되었을 뿐이다. 그것은 정말로 죽지 않는다. 하지만 이 공간의 이 사람만은 오히려 소실되었다. 왜냐하면, 신체를 화장하거나 혹은 매장하게 마련이므로 신체는 조만간 썩어 해체되기 때문이다. 이 공간에서 그것이 없어졌다. 즉 이 한 층의 입자가 소실되었다. 그럼 내가 방금 말하고자 하는 그 외계 문화, 그것은 사람 자신의 사상을 이용하여 몰래 그것들이 가지려 하는 이 한 층의 신체를 만들고 있다. 그러면 그것은 최종적으로 어떻게 사람을 대체하는가? 여러분 알다시피 이 사람의 가장 표면인 겉껍질

등등은 오염이 심하면 심할수록 인류에게 위해를 더 크게 끼친다. 오늘날 인류사회의 발전은 지난번 인류사회 발전의 반복으로서, 지난번은 이번을 위한 실험이었다. 계속 이렇게 발전해 내려간다면 사람은 모두 기형(畸形)이 될 것이다. 산업폐기물, 폐수로 인하여 사람은 모두 기형이고, 몹시 추악한 모습으로 자라, 사람도 아니고 귀신도 아닌 것이 될 것인데, 더 발전해 내려간다면 곧 이러할 것이며, 또한 도덕상의 부패한 요소는 사람으로 하여금 죄악을 저지르게 할 것이다.

여기까지 말한 김에 나는 또 한 가지 문제를 말하겠다. 여러분이 알다시피 지금 이 과학은 외계인이 인류에게 가져다준 것이다. 서양의 산업혁명이 시작될 때 그것이 들어왔다. 그것은 수학·화학에서 시작하여, 가장 초기의 얇은 지식에서부터 현대의 기기(機器)에 이르기까지 관통했고 마지막으로 오늘날의 컴퓨터에까지 발전했다. 더 발전해 내려가면 그것의 최종적인 목적은 사람을 대체하는 것이 될 것이다. 어떻게 대체하는가? 내가 말했듯이, 지금 인류의 신체 속에는 사람마다 거의 모두 외계인이 만들어준, 한 층의 신체가 있다. 무엇 때문인가? 그것이 당신에게 주입해 준 그 모든 과학이, 당신의 사상 속에서 변이(變異)된 인류의 사상을 형성했기 때문이다. 인류의 어느 한 시기 문명

너무 빈번하게는 열지 말아야 한다. 형식에 치우치지 않는, 정말 여러분의 제고를 위한 아주 알찬 것이어야 하며, 이런 역할을 할 수 있어야만 한다고 나는 생각한다.

여러분이 알다시피, 이 법을 나는 이미 대단히 높게 말했다. 여러분이 『전법륜(轉法輪)』 이 책에서 법을 이해한다면 비교적 쉬울 것이다. 내가 이후에 설한 그러한 법은, 만약 당신이 『전법륜』을 보지 않고 직접 이런 각 지역의 설법을 본다면, 이해는 할 수 있겠지만, 수련을 연관되게 지도하지는 못할 것이다. 왜냐하면, 법은 원용(圓容)한 것이기 때문이다. 그의 전체는 함께 관통된 것으로서, 당신이 그를 어떻게 보든지 모두 해석할 수 있다. 순서대로 보든, 뒤에서부터 보든, 중간부터 보든, 어떤 방법으로 이 대법을 어떻게 보든, 그는 모두 함께 통할 수 있고, 서로 모두 해석될 수 있는가 하면, 서로 연대적 작용을 할 수 있다. 이것이 바로 대법의 원용불과(圓容不破)한 요소이다. 그렇다면 내가 기타 각 지역에서 한 설법은 실제로는 모두 부동(不同)한 지역, 부동한 상황에 대하여 말한 것이다. 특히 내가 미국 또는 유럽 일부 나라에서 우주의 구조에 대해 말한 것이 비교적 많은데, 물론 이러한 것 역시 당신들의 수련과 떼놓을 수 없다. 여러분이 수련하는 목적은 무엇인가? 당신들이 원만을 이룬 후 당연히 이 공간 중에 있지 않게 되고, 그것은

필연 다른 공간에 관련되고, 우주의 구조에 관련되기 때문에 나는 이러한 것을 말했다. 하지만 부동(不同)한 지역의 수련생과 부동한 상황에 대해 나는 모두 다른 각도, 다른 방식으로 설법했다. 이것이 내 설법의 특징이다.

사람마다 모두 집착하는 것이 있고, 모두 속인 사회 중에서 자신이 인식한 진리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는 이런 것들을 고수하면서 그의 인생을 유지하고 있다. 사실 내가 여러분에게 알려주겠다. 당신이 속인 중에서 어떤 이치를 깨달았든, 인류보다 높은 모든 층차의 생명이 보면 다 틀린 것이다. 왜냐하면, 인류사회 전반은 모두 거꾸로 되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당신들의 이 장애, 바로 당신들의 법언음을 심하게 방해하고 있는, 당신들이 형성한 이 관념을 타파하기 위해, 나는 부동(不同)한 지역에서 부동한 사람을 향해 부동한 설법을 하는데, 당신 두뇌 중의 장애, 법을 얻는 장애를 타파한다. 중국에서 미국으로 온 많은 사람이 모두 성취가 있고 모두 고급 지식인들이며, 많은 사람이 다 학위가 있다. 현대과학에 대한 그들의 인식은 모두 비교적 명석하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당신 자신이 명석하다고 인식하는 이 자체가 바로 이미 장애이다. 왜냐하면, 이 과학은, 내가 이미 여러 번 말한 적이 있지만, 그것 자체가 비과학적이기 때문이다. 그것은 단지 외계인이 사람에게 강요한

남극지역에 열어 놓는 것이 인류에게 안전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폐기가 어느 지역에서 생기면 마땅히 그곳의 하늘에 구멍이 생겨야 하는데, 왜 그렇지 않은가? 그것은 사람이 상상하는 그런 일이 전혀 아니다. 중국의 그 청장고원(靑藏高原)에도 있는데 모두 인가(人煙)가 거의 없는 곳에 큰 구멍이 났다. 또 우리가 알고 있는 오존층에 그치지 않는데, 물질 중에는 그런 미시적인 물질 요소가 아주 많이 함유되어 있기 때문에 모두 한 갈래 길을 내주어야만 비로소 그것을 방출시킬 수 있다. 물론 이것은 신이 사람을 위해 한 것이다.

또 인류의 오염에는 더욱 심각한 문제가 있다. 여러분이 알다시피 지금 세계에 있는 담수(淡水)는 순수하고 깨끗한 것이 거의 없다. 지하수 또는 지상수(地上水)에 관계없이, 사람이 이 물을 어떻게 여과하고, 정화해도 모두 진정한 물의 순도(純淨度)에 도달하지 못한다. 게다가 또 인류는 물을 반복해서 쓰고 있는데, 쓰면 쓸수록 오염된다. 왜냐하면, 인류의 물, 그것은 순환하는 것이고, 담수는 순환하는 물질이기 때문이다. 담수는 바닷물과 섞일 수 없다. 왜냐하면, 그것은 같은 물질이 아니기 때문이다. 어떠한 물질, 어떠한 물건에도 생명은 존재한다. 당신이 볼 때 그것은 표면상으로 물이지만, 저쪽의 그것에는 생명이 있다. 토지·물·공기

심각하다고 말한다. 예를 들면 그것이 말하는 냉각제 속의 그 프레온 등등 일부 것은 대기 오존층을 파괴할 수 있고, 남극은 오존층이 파괴되어 구멍이 생겼다고 한다. 실은, 과학이 신의 작용을 인식하지 못한 나머지 오존층이 파괴되어 구멍이 생겼다고 한 것이다. 확실히 현재의 산업이 가져온 오염은 인류의 공기를 이미 말이 아닐 정도로 오염시켰다.

그러나 미시상(微觀上)의 방대한 우주의 무수한 유형(有形)·무형(無形)적인 것은 모두 신(神)으로서, 인류가 보지 못하는 미시 영역에 있다. 공기는 분자 입자로 구성되어 있고 분자 입자는 또 더욱 미시적인 입자로 구성되었다. 이 공기 중에서 층층 층층 수없이 미시적인 데로 내려간다면 얼마나 많은 층이 있는지 모르는데, 모두 신(神)이다. 그들은 사람의 환경이 이미 이 지경으로 변한 것을 보고 창문을 하나 열어 놓고 문을 하나 열어 놓아 지구 속의 폐기(廢氣)를 배출한다. 이것은 신이 이렇게 한 것으로서, 일부러 열어 놓은 다음 다시 닫는다. 만약 신이 사람을 보호하지 않는다면 사람은 생존할 방법이 없다. 사람은 신을 믿지 않을 뿐만 아니라 또한 신을 공경하지도 않는다. 그럼 우리가 가장 간단한 예를 들어보자. 여러분 알다시피 산업오염이 가장 심한 곳은 바로 사람이 가장 많은 곳—대도시이다. 왜 대도시의 공중 오존층에는 구멍이 생기지 않는가? 신은

것이며 이미 사회 전반에 관통되어 있고 여러 면이 모두 이것에 관통되어 있다. 그러면 당신은 그중에 있기에 당신은 필연코 그것이 어찌 된 일인지 분간하지 못한다. 그러면 나는 왜 현대 과학에 결부해 설법하는가? 왜냐하면, 현대과학이 사람의 관념과 행동양식을 바꿔놓았기 때문이다. 인류의 생존조건이 바뀔에 따라 사람의 행위에 변화가 생기고, 인류의 모든 문화에도 변화가 생겼다. 과학 이외의 문화를, 각 민족의 문화를 포함하여, 오늘날의 사람들은 전혀 이해하지 못한다. 현대과학 방식으로 이 우주의 상황을 말해야만, 현대인은 비로소 이해할 수 있고, 우주에 실재하고 있는 물질의 근본, 생명의 근본, 우주의 근본이 무엇인지 알 수 있다. 이렇게 해야 당신들이 속인 속에서 얻었다고 여기는 이른바 진리를 타파할 수 있고, 이런 것을 타파함으로써 당신들이 법(法)—진정한 진리를 얻는 데 도움이 된다. 당신들은 과학이 결코 무슨 진리가 아님을 발견함으로써 법을 쉽게 얻을 수 있다. 그러므로 이 역시 내가 부동한 사람, 부동한 상황, 부동한 지역에 대해 이 법을 말하는 특점의 하나로서, 현대인의 변이(變異)된 관념에 결부해서 설법하는 것이다. 물론 우리 많은 사람, 특히 지식이 비교적 높은 층의 사람은 장기간 과학과 지식에 대해 일종 탐구하기를 즐기는 그런 습관적인 관념을 키워왔다. 그가 일단 이러한

것을 접하기만 하면 그는 연구 토론하려 하고, 이해하려 한다. 그는 이미 지식 탐구에 익숙해 있는데 만족하지 못하는 사람의 그 심리작용으로, 그는 늘 탐색하려 한다. 사실이 우주는, 사람의 사상·사람의 관념·사람의 현재 수준·혹은 장래의 수준으로는 우주가 도대체 무엇인지 영원히 탐측해 내지 못하며 탐측해 내기가 전혀 불가능하다. 왜냐하면, 사람의 사유·사람의 언어는 단지 일정 범위 내의 일만 형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범위를 벗어나면 인류는 그런 언어가 없어 그것을 형용할 수 없다. 단지 그것을 형용할 수 있는 언어가 없을 뿐만 아니라, 그러한 어휘가 없다는 말이다. 현존하는 어휘 그것은 이미 의미가 완전히 달라져 버려 당신이 어떻게 형용하려 해도 형용하지 못한다. 이것이 바로 어떤 때에 내가 여러분에게 설법할 적에 말하기가 힘든 원인이다.

또 하나, 사람의 사유에는 어떤 순서가 있게 마련인데, 이 순서 역시 적용되지 않으므로 당신은 우주에 대해 전혀 분명하게 말할 수 없다. 수련생이 법을 볼 때를 포함하여, 많은 경우 모두 마음으로는 터득할 수 있으나 언어로는 표현할 수 없어 한다. 모든 수련생이 모두 이런 감각이 있다. 그를 터득할 수는 있지만, 명확하게 표현하지는 못한다. 즉 그는 속인의 그런 사유가 아니며 또한 속인의 언어로 명확

런 상태가 나타난다. 역사상 수련하는 많은 사람이 이런 광경을 보았다. 하지만 그는 말로 표현하지 못했다. 때로는 불교 중의 사람들은 부처가 마음속에 있다고 말하고, 도가는 인체가 바로 소우주라고 말하며 어떠어떠하다고 하는데, 바로 그들도 이런 광경을 본 것이다.

나는 과학을 말할 때, 과학 역시 좋지 않은 작용을 하고 있다고 한다. 그것은 단지 인류 환경을 오염시키고 인체조직을 파괴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최종적으로는 또 외계인 그것으로 사람을 대체하려 한다고 했다. 그것의 것이 이미 인류사회의 일체 영역 속에 관통되어 있고, 인류 역시 과학을 벗어나지 못하는데, 일체는 모두 그것에 의해 조성된 것이다. 그러면 우리 대법제자들은 어떤 일을 하든지 당신은 오로지 하기만 하고 당신의 일을 잘하면 된다. 이 일체에 대해 상관하지 말라. 나는 이 과학에 대해 반대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또 여러분에게 어떻게 그것을 배척하라고 가르치는 것이 아니다. 이런 뜻이 아니다. 나는 당신들에게 과학이 무엇인지를 알려주려는 것이다. 많은 것에 대한 과학의 인식은 너무나 천박한바, 현존 공간 사물에 대한 인식조차도 부족하다. 왜냐하면, 그것이 신(神)의 존재를 인식하지 못하므로 해서 자신의 발전을 한정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말한다면 지금 과학자들은 모두 인류의 산업오염이 아주

인 중 하나이다. 서양사회는 마치 그들이 신을 믿고 있는 것 같지만, 그들은 결단코 정말로 신을 믿는 것이 아니다. 그들이 진정 믿는 것은 과학이다. 신도 그들이 상상하는 것과 같은 그러한 인간의 감정을 지니고 있는 생명이 아니다. 나는 방금 여러분에게 한 가지 관건적인 개념을 시정해 주었다. 바로 하늘에 대한 인식이다. 신과 사람이 생각하는 이 하늘, 그것은 같은 것이 아니다.

많은 사람이 수련 중에서 종종 자신이 마치 자신의 신체 속으로 들어간 것 같음을 보는데, 신체 속은 마치 광활한 하늘과 같아, 자신이 하늘 속을 운행하고, 천체 속을 걷고 있는 것 같다. 그 문이 하나하나 열리면서 자신이 앞으로 돌진하는데, 다시 자세히, 사상을 한층 더 넓혀서 보니, 아, 그것은 자기 신체의 혈맥(脈穴)이 열리고 있는 것이었다. 여러분 생각해 보라. 당신이 수련하면, 당신의 신체는 가장 미시적인 데서부터 개변이 되는데, 가장 미시적인 것은 무엇인가? 당신의 그 다른 신체가 바로 하늘에, 그 경지 중에 있는 것이 아닌가? 단지 사람만이 속인 중에 떨어져 왔을 뿐만 아니라, 당신의 그 일체가 모두 속인 속으로 떨어져 왔으며 심지어 가장 미시적인 그 부분마저도 속인 속으로 떨어져 왔다. 그러나 만약 당신이 수련하여 되돌아간다면, 당신을 위해 이 일체를 모두 바르게 되돌려주므로 바로 그

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하지만 나는 여전히 되도록 사람의 언어로 그를 말하며 되도록 여러분으로 하여금 명백해질 수 있게 하고 있다. 지난번에 내가 제네바에서 여러분에게 설법할 때 나는 이미 상당히 곤란한 것을 느꼈다. 나는 나의 이쪽에서도 명료하게 말하지 못했다고 느꼈다.

최근에 나는 책을 여섯 권 펴냈는데, 바로 작년 싱가포르·제네바·프랑크푸르트·북미 제1기 법회와 장춘 보도원 법회에서 한 차례 말한 법(法)과 그리고 또 한 권은 내가 수련생들에게 써준 그런 네 구절 네 구절로 된 시라고 해도 될 법한 바로 이런 책 한 권이다. 전부 여섯 권인데 모두 펴냈다. 목적은 무엇인가? 내가 각지에서 말한 것은 단지 그 상황에서만 듣기에 적합할 따름이다. 다른 환경 속에 갖고 와서 듣는다면 법이기 때문에 역시 작용할 수는 있지만, 겨냥성이 없으며 또한 법을 체계적으로 듣지 못한 그런 사람들로 하여금 쉽게 잘못 이해하게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이런 부족함을 보완하기 위해 나는 그를 정리하였고 지금은 모두 출판하였다. 그러니 일단 당신이 책을 받았다면, 여러분은 각지에서 전해 준 비디오테이프, 그것은 소각해 버려야 한다. 여러분이 알다시피 이 비디오테이프에는 아주 큰 특징이 있는데, 당신들은, 내가 여러분의 문제에 해답해 줄 때, 질문하지 않은 것에 대해 답해 주는 것을 종종 들었을

것이다. 왜 이러한가? 왜냐하면, 우리는 시간이 아주 제한되어 있고, 일부 사람이 제출한 문제는 내가 그 쪽지를 읽기만 해도 여러분이 다 알아버리기 때문인데, 그래서 나는 이 기회를 빌려 다른 문제를 다루곤 했다. 만약 이 질문하지 않은 것을 해답한 그 녹음테이프를 외부로 가져가 듣는다면 남들은 이해하지 못할 것이다. 우리는 이러한 문제를 모두 해결해야 하기에 이 몇 권의 책을 펴냈다. 방금 내가 말한 뜻은 다시 말해서 내가 부동한 지역의 상황에 대해 말한 부동한 지역의 일이었다.

지난번에 내가 중국에 있을 때, 바로 전 한 시기 미국으로 오기 전에 나는 그들에게 알려주었다. 나는 베이징과학기술계의 대학 교수와 과학연구를 하는 이러한 수련생들 및 일부 대법책임자를 소집하여 과학에 대해 그들에게 자세히 말해주겠다고 했다. 그런데 결과는 하려던 일을 그렇게 원만하게 할 수 없었다. 그것은 많은 다른 수련생이 와서 제출하는 문제가 내가 말하고자 한 내용과 맞지 않아 말하기가 어렵게 되었기 때문이다. 나는 여러분이 법을 듣고자 하거나 나를 만나려 하는 것을 반대하지 않는다. 하지만 부동한 지역에는 부동한 지역의 상황이 있다. 나는 오늘 더 많이 말하고 싶지 않다. 왜냐하면, 결국은 법회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발언해야 한다. 나는 내일 여러분의 문

로는 진짜 하늘을 볼 수 없고 인식하지도 못한다. 그것이 단지 현존의 물질공간 속에서만 기어 다니게 제한하고 있기 때문이다. 외계인이 사람에게 강제로 주입한 과학 역시 여기에 국한되어 있다. 외계인 역시 이 공간의 생명으로서 그것 또한 우주의 진상을 인식하지 못한다.

사람이 신을 믿지 않는 것은 간단한 문제가 아닌바, 사람이 사람의 도덕을 훼손시키고 있다. 사람이 업력운보(業力輪報)를 믿고, 좋은 일을 하면 좋은 보답을 받고, 나쁜 짓을 하면 나쁜 보답, 악보(惡報)를 받는다는 것을 믿는다면, 사람이 무엇을 하든지 모두 신이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믿는다면, 사람은 감히 나쁜 짓을 하지 않을 것이다. 사람은 좋은 일을 하면 더(德)를 쌓을 수 있고 장래에는 복으로 보답 받으리라는 것을 알고 있다. 게다가 이는 절대적인 사실이다. 사람이 이러한 것을 믿지 않고, 과학은 지금 이러한 것을 믿지 않으며 미신 짓이라고 여기는데, 이것이 바로 과학이란 몽둥이를 휘둘러 사람의 정념(正念)을 때리는 것으로, 사람의 가장 본질적인 것을 때리는 것이 아닌가? 사람의 도덕·정신(正信)·정념(正念)이 모두 공격받아 없을 때, 사람은 곧 아무런 거리낌 없이 그가 하고자 하는 짓을 하고 그의 목적에 도달하기 위해 모든 수단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 이것이 바로 인류사회가 부패하게 된 근본적인 원

지 못하는데, 사람의 개념으로는 이해할 수 없다.

어떤 사람이 하늘로 올라갔다고 말하는데, 내가 여러분에게 알려주겠다. 당신이 갑자기 돌 속으로 뚫고 들어갔다면 하늘로 올라간 것이 아닌가? 당신이 물질로 형성된 이 돌의 표면을 뚫고 속으로 들어간다면, 그것은 안 된다. 당신이 분자 입자로 구성된 미시입자의 경계면을 뚫고 들어갔다면 하늘로 올라간 것이 아닌가? 당신이 자신을 축소하여 당신 신체의 미시적인 그 한 층으로 들어갔다면 당신은 하늘로 올라간 것이 아닌가? 당신들이 어떤 한 층 공간의 표면 입자의 미시입자 속을 뚫고 들어간다면, 즉 그것보다 작은 그 한 층 입자 속으로 들어간다면 당신은 바로 하늘에 있는 것이다. 다만 하늘의 층차가 같지 않고, 미시의 정도가 같지 않을 뿐이다. 미시세계에 도달한 후, 당신이 보면 돌에 들어갔고, 신체에 들어갔고, 어떤 한 물체 속으로 들어간 것을 볼 것이다. 실은 당신이 그 공간과 한데로 연대(連帶)되어 있는 광활한 우주 속으로 들어간 것이다. 다시 말해서 이는 사람의 사유방식이 아니다. 나는 늘 말했다. 사람이 인식하는 동남 서북, 상하 내외가 우주 중에는 존재하지 않으며 사람의 그런 사유개념이 아니다. 나의 이 말에 여러분은 명백해 졌다. “아, 사람의 사유로 상상할 수 있는 전혀 그러한 일이 아니로구나.” 지금의 과학은 극히 천박하기에, 그것으

제에 답해 주겠다.

여러분이 여기에 앉아 있기에 나도 여러분에게 몇 가지 문제를 말하겠다.

우선 홍법에 관한 문제를 말하겠다. 당신들은 확실히 아주 많은 노력을 했다. 그러나 한 가지 문제가 있다. 여러분은 최근 한 시기에 신(新) 수련생이 오는 것이 비교적 적음을 발견하였다. 왜 이런 상황이 나타나게 되는가? 왜냐하면, 맨 처음부터 이 일 전체가 아주 체계적으로 배치되어 내려왔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배치는 나의 승인을 거치지 않은 것으로서, 이는 우주 중 과거의 구(舊) 세력이 내가 모르고 있고 동의하지 않은 상황에서 배치한 것이기 때문이다. 단지 이렇게 개괄적으로 말할 수밖에 없다. 정법(正法)하기 때문인데, 바로잡는 것은 무엇인가? 바로잡는 것은 바로 법을 빗나간 그 낡은 일체이다. 과거의 바르지 못했던 것, 그것들이 이미 세력을 형성하여 하나의 체계를 이루었는데, 이런 것들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부면(負面) 작용을 일으키고 있다. 그런데 나는 법을 전하는 과정 중에서 더욱 많은 사람에게 법을 얻게 하려고 생각했는데, 구세력은 이미 이 일을 단계별로 나누어 놓고서는 이 일을 함에 사람의 수는 충분하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억제해 왔다. 당시에 나는 2억 명이 법을 듣는 것으로 정했는데, 결국 이러한 낡은

악세력(惡勢力)은 1억 명으로 제한했다. 그래서 여러분이 홍법을 추진해가는 데 일부 곤란이 있게 된 것이다. 하지만 이후의 사람은 법을 얻을 수 없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다. 이후의 사람 역시 잇따라 인식할 것이고 법을 얻게 될 것이다. 당신들이 마땅히 해야 할 바를 하도록 하라. 설령 이렇다 하더라도 당신들 역시 억지로 누구를 끌어당겨 법을 얻게 할 필요는 없다. 수련은 자원(自願)적이다. 수련하지 않으면 본인이 편할 대로 놔두라. 구세력의 간섭 때문에 우리의 무엇을 개변하지는 말아야 한다. 당신들이 이 법을 인식하지 못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능히 인식하도록 하고, 알지 못하는 사람을 알게 한다면 이는 성의를 다 한 것과 같다. 바로 이러하다. 내가 방금 말한 뜻은 바로 여러분에게 그것은 이유가 있기 때문에 이 상황을 조성한 것임을 알려주는 것이다. 그러나 당신들은 나의 말을 빗나가게 듣지 말아야 한다. 오, 마치 또 무엇을 알게 된 것처럼 당신들이 또 단장 취의(斷章取義) 식으로 자신의 관념과 집착심을 품고 말한다면 이는 모두 안 되며 정상적이어야 한다. 나는 다만 당신에게 그것이 이런 상황임을 알려줄 뿐이다.

그러나 내가 오늘날 하는 이 일은 당신들을 법과 연계(連繫)시키는 일이다. 당신들의 수련은 왜 이렇게 빠를 수 있는가? 이 속에는 많고도 많은 요소가 있는데, 이것이 한

땅에 놓고 마개를 열더니 단번에 술 주전자 안으로 뛰어들어갔다. 그는 사부가 뛰어들어간 것을 보고 역시 사부가 하는 대로 따라서 술 주전자 안으로 뛰어들어갔다. 구경꾼들이 모두 그 술 주전자 입구에 엮드려 안을 들여다보았다. 야, 들여다보니 그 속은 광활한 세계였고 굉장히 컸다. 이렇게 작은 술 주전자인데, 사람의 사유로 생각하면 어떻게 그렇게 큰 사람이 거기서 뛰어들어갈 수 있겠는가? 만약 당신이 그 공간으로 들어가려면 당신 신체의 일체 상태가 모두 그 공간의 상태에 부합되어야만 당신은 비로소 들어갈 수 있다. 공간 간격을 꿰뚫으려면 신체는 반드시 그 공간의 상태로 진입해야 한다. 왜냐하면, 물질의 입자는 더욱 미시적일수록 그것의 층차면이 더욱 광활하고 더욱 크기 때문이다. 미시적인 입자, 그런 층차 중의 술 주전자의 표현형식은 사람이 볼 수 있는 형태가 아닌 모든 입자가 연결되어 통하고 있는 그런 것이다. 사람이 보는 크고 작음은 단지 동일한 입자로 구성된 시공의 일종 표현형식에 불과할 뿐이다. 그럼 다시 말하면, 이 주전자의 표면은 분자로 구성되었는데, 당신이 보는 그것은 곧 이러한 모양이다. 그러나 미시상에서 그 주전자는 이런 모양이 아니며, 그것은 그 경지의 우주와 한데로 연결되어 있다. 내가 한 말의 뜻을 알겠는가? (박수) 나는 곧 그 뜻을 말한다. 사람은 이것을 이해하

(放射性)도 더욱 큰데, 미시적일수록 커진다. 이것이 바로 왜 신, 그의 에너지, 그의 존재 형식이 그러한가 하는 것이다. 내가 다시 여러분에게 좀 더 분명하게 말하면, 지구인들이 보는 달·태양·금성·화성, 당신이 보는 은하계, 우주 바깥(外太空)과 아득히 먼 천체 등등을 포함하여 모두 하늘이다. 당신이 말해 보라. 당신이 화성에서 지구를 본다면, 그것도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닌가? 역시 하늘에 있는 것이다. 이는 속인의 사유방식을 타파한 인식이다.

그러나 더욱 깊은 인식에서 여러분 생각해 보라. 무엇이 하늘인가? 당신이 미시적인 그 공간으로 들어가기만 하면 바로 하늘이다. 내가 가장 간단한 예로 옛이야기를 하겠다. 과거에 한 수도(修道)하는 사람이 술을 마시면서 거리를 지나다 갑자기 한 사람을 보았는데, 이 사람이 바로 자신이 찾고 있던 도를 닦을 만한 사람이었다. 수도인은 이 사람을 제도하려고 그를 도제(徒弟)로 삼고자 했다. 수도인이 이 사람에게 물었다. “나를 따라가 수도할 생각이 있는가?” 이 사람은 오성(悟性)과 근기가 아주 좋기에 대답했다. “수도 하고 싶습니다.” “자네가 나를 따라갈 용기가 있는가?”라고 하자 그는 대답했다. “있습니다!” “내가 어디를 가든, 자네가 다 따라올 수 있겠는가?” “예.” “좋아, 그럼 자네가 나를 따라와 보게!” 그가 말하면서 그 손바닥만 한 술 주전자를

가지 중요한 원인이다. 내가 이 법을 전하고 전반 법을 바로잡고 있을 때에, 부동한 층차 중의 모든 생명이 법을 듣는데, 가장 낮은 층차에서 법을 듣는 세상의 수련인이 바로 당신들이다. 그러므로 당신들은 이 대법과 연계된 것이다. 비록 가장 낮은 층차에서 법을 듣는 것이 당신들이지만, 당신들은 장래에 영원히 가장 낮은 층차 속에 있는 것이 아니다. 당신들은 원만을 이루어야 하고 부동한 경지, 부동한 층차로 가야 하므로 전체적인 것은 관통되어 내려온 것이다. 장래에 이 일이 결속되고 나면 다시 수련하는 사람이 오는데, 오늘날의 법을 바로잡는 이 일과는 상관이 없이 그는 정상적인 수련으로 들어간다.

내가 오늘날 전하는 이 우주 대법 역시 사람에게 준 한 차례 가장 큰 기회이다. 왜냐하면, 이처럼 큰 법으로 수련한다는 것은, 과거에는 물론 상상도 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당신들이 지금 법을 얻을 수 있고, 내가 당신들에게 설법하는 것을 직접 들을 수 있으며, 거기다 또 법을 바로잡는 이 일과 연계된 이때에 당신들은 아직도 이 일의 의미가 얼마나 위대한지를 생각하지 못하고 있다! 어떤 때 수련생들은 정진하지 못하고 있는데, 이는 자신에 대해 무책임한 것이다! 어쨌든 사람인지라, 사람의 사상이 있어 이러한 것을 의식하지 못하게 마련인데, 다만 이럴 수밖에 없다.

사실상 언어로 다 표현할 수 없다. 장래에 당신들은 당신들이 얼마나 행운인지 알게 될 것이다! (박수)

또한, 여러분은 수련 중에서 우리 이 환경이 대단히 좋은 것을 다 알게 되는데, 연공장에서 여러분이 흙금을 털어 놓고 하고 싶은 말을 다 할 수 있는 이것은, 인류사회 어디에서도 가능한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수련생마다 대법 연공장에 가기만 하면 정토에 들어왔고, 가장 신성한 곳에 들어온 감을 느낄 것이다. 사람들은 모두 서로 당신은 나에게 관심을 가지고, 나는 당신에게 관심을 가지는데, 이는 어떤 인류 환경 속에서도 찾아볼 수 없다. 왜 이럴 수 있는가? 바로 대법제자 매 한 사람이 모두 자신을 수련하고 있기 때문이다. 문제가 생기고 모순이 나타나면 여러분은 모두 자신이 잘하지 못하여 조성된 것이 아닌지 하며 자신에게서 원인을 찾는다. 여러분은 모두 이렇게 하는 것을 다 알고 있다. 그러나 일부 법 공부를 견지하지 못하는 사람은 아직 하지 못한다. 그럼 이 일부 문제를 말한 김에 또 좀 말해야겠다. 물론 내가 여러 환경 중에서 여러분과 여러 차례 말한 적이 있다. 모순에 부딪혔을 경우에는 모두 안을 향해 찾아야 한다고. 그러나 어떤 사람은 모순에 부딪혔을 때 그는 아직도 안을 향하여 찾지 못한다. 어떤 사람은 인식할 수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생각마저도 하기 싫어하고 심

분자가 다 흙(土)으로 보이고 우주 진흙(泥)으로 보인다. 이는 아직 여래 이 층차의 인식이다. 그러므로 예전에 여호와 혹은 여와가 진흙(泥土)으로 사람을 만들었다는 것은 정말이다. 왜냐하면, 당신의 삶은 모두 분자인데 신의 눈에는 모두 진흙(泥)이고 모두 흙(土)이며 가장 조잡한 일종의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라. 당신, 이 우주선이 아무리 높게 날았다 해도 당신은 분자라는 이 경지를 벗어났는가? 비행기가 하늘을 날아 당신이 아시아에서 아메리카에 도착했다면 당신은 굉장히 높고 굉장히 멀리 날았다고 느낄 것이다. 사실 당신은 단지 이 분자 더미 속을 달렸고, 땅 위를 달렸을 뿐, 이는 전혀 하늘이 아니다. 신의 눈으로 보면, 단지 이 거리가 멀고 가까울 뿐, 동등한 물질 중에 있는 것이다. 그러나 미시적인 세계로 구성된 공간 그것이야말로 신이 말하는 진정한 하늘이다. 물질은 미세할수록, 더욱 미세적일수록 그것이 구성한 표면도 더욱 정미하고 정교하다.

분자를 포함하여 일체 물질은 모두 에너지가 있다. 다만 사람 신체와 주위의 일체는 모두 분자로 구성되었고, 에너지를 측정하는 그 기계도 모두 분자로 구성된 것이기 때문에 당신은 분자의 에너지를 측정해 내지 못한다. 그런데 물질은 더욱 미세적일수록 그것의 에너지가 더욱 크고 방사성

가지 일인데, 바로 ‘하늘(天)’이다. 지금의 과학이 말하기를, 우주선이 높고 드넓은 하늘 밖(外太空)으로 날아갔고 많은 별로 날아갔는데 사람이 있는 것을 보지 못했고 신의 세계가 있는 것을 보지 못했으며, 또한 사람이 말하는 이른바 삼계(三界)의 각기 다른 하늘의 그 상태를 보지 못했다고 한다. 그러므로 현대인은 이 이론으로 종교를 부정하고 과거의 오랜 전설을 부정하며 사람의 가장 본질적인 것을 부정하고 있다. 사실 신이 가리킨 ‘하늘’과 사람이 본 ‘하늘’은 전혀 같은 개념이 아니다. 나는 늘 사람의 이 물질공간의 일체는 분자로 구성되었다고 했다. 그뿐만이 아니라 또 미시적인 물질이 분자를 구성하는 원인이고, 더욱 미시적인 층층의 물질 또한 층층의 부동한 층차의 입자를 구성하는 근본적 원인이라고 했다. 신은 극 미시세계에 있지만, 오히려 극히 광활한 세계, 광활한 공간이다. 내가 때번 여러분에게 미시 세계에 대해 말할 때, 미시적으로 구성된 그 공간은 신이 있는 곳이라고 했다. 여러분 생각해 보라. 신을, 내가 그날 말했지만, 사람의 이 공간의 일체 공기요·물질이요·흙이요·돌이요·강철이요 하는, 당신, 이 공간의 일체는 당신의 신체를 포함하여 모두 분자로 구성된 것이다. 그러나 분자는 이 우주 중에서 가장 조잡하고·가장 표면이며·가장 더러운 물질이다. 바로 이 분자가, 신의 눈에는 모든

지어 자신이 수련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완전히 잊고 있는데, 이렇다면 아주 부족하다고 나는 말한다. 당신과 수련생 사이에, 당신의 업무 환경 중에, 당신이 소속한 속인 사회의 어떠한 상황에, 수련생과 수련생 사이에, 혹은 수련생과 이보도원 사이에 어떤 모순이 있을 때, 당신은 자신에게서 원인을 찾아야 한다는 생각을 하지 못한다.

나는 늘 여러분에게 두 사람 사이에 모순이 생겼다면 각자가 원인을 찾아야 하는 이러한 정황을 말했다. 말하자면 나 여기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자기 자신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모두 찾아야 한다. 만약 제삼자가 그들 두 사람 사이에 모순이 있는 것을 보았다면 그 제삼자인 당신 역시 우연하게 보게 된 것이 아니므로 당신 또한 생각해 보아야 한다고 나는 말한다. 왜 내가 그들의 모순을 보게 되는가? 나 자신에게 아직도 부족한 점이 있지는 않은지? 이렇게 되어야만 한다. 그러나 당신들은 일단 모순에 부딪히면 모두 밖으로 밀며 다른 사람의 약점·결점을 찾는데, 이것은 잘못된 것이다. 당신은 대법 사업에 손실을 끼칠 수 있고, 대법에 손실을 끼칠 수 있다. 당신은, 당신들이 모두 대법과 대법 일로 당신들 자신의 부족함을 얼버무리고, 당신들 자신의 집착을 덮어 감추고 있다는 것을 생각하지 못한다. 당신이, 다른 사람이 잘하지 못하고 있음을 느낄 때, 당신의 마

음에 걸릴 때, 당신은 생각해 보아야 한다. ‘왜 내 마음에 걸리는가? 그에게 정말 문제가 있는가? 아니면 나의 마음에 문제가 있는가?’ 자세히 생각해 보아야 한다. 만약 정말로 자신에게 무슨 문제가 없고, 그가 한 것에 문제가 있는 것이 확실하면 당신은 선의(善意)로 그에게 말할 수 있는 바, 이렇게 되면 모순이 없을 것이다. 틀림없이 이리하다. 만약 상대방이 이해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그 사람의 문제고 당신은 말해 주었으면 그만이다.

모순이 없으면 제고될 수 없다. 어떤 사람은 모순이 없는 이 환경을 아주 평화롭다고 여기며 모두 수련을 아주 잘했다고 생각한다. 사실 내가 당신에게 알려주는데, 그것은 좋지 않다. 나는 당신에게 일부 모순을 만들어 줄 것인데, 당신에게 모순이 없으면 안 된다. 왜냐하면, 모순 속에 있어야만 당신의 그 마음이 드러나 당신 자신으로 하여금 볼 수 있게 하고, 또 다른 사람에게도 그것을 보여줄 수 있는데, 그런 연후에야 제거되기 때문이다. 만약 이 모순이 없다면 당신은 그 속인 마음을 제거해 버릴 수 없다. 그러니 반드시 주의해야 한다. 당신들이 어떤 환경에 있든, 특히 당신들은 속인 중에서 수련하고 있으므로 반드시 모순 속에 있게 마련인데, 반드시 心性(썬썬)의 교란에서만 비로소 心性(썬썬)을 제고할 수 있다. 나는 설법 때마다 늘 이 문제

떨어져 내려온 것이다. 부처는 자비하므로, 자기의 세계에서 떨어져 내려간 생명을 구하려 하기에 그는 놓아주지 않는다. 그렇다면 못 신(衆神)들이 실제 구하려는 것은 모두 그들 자신 세계의 생명이다. 그는 근본적으로 다른 세계의 생명을 건드릴 수 없다. 무엇 때문인가? 이 생명을 구성하고 있는 일체 요소가 모두 그의 세계 속의 요소이기 때문인데, 이러한 요소를 제거해 버린다면 이 생명은 흩어지게 마련이다. 누구도 함부로 건드릴 수 없다. 예전에 사람들은 모두 부처를 믿고, 부처를 숭배하고, 그 신(神)을 숭배했는데, 사실 단지 그가 신을 믿는다고 하는 일종의 정념(正念)에 지나지 않는다. 그 부처는 그를 책임질 방법이 전혀 없으며 책임지고자 해도 책임질 수 없다. 물론 석가모니·예수 이런 신이 내려와서 사람을 제도했는데, 그는 일종 특수한 상황에 속한다. 그건 물론 많은 문제에 관련되는 것이므로 말하지 않겠다. 다시 말해서 대법은 이러한 작용을 할 수 있다. 그들 마음속 깊은 곳에서 아직도 그의 원래의 것을 내려놓지 못하는 그러한 사람에게, 바로 그에게 이 기회를 주고자 내가 오늘 말하는 것이다. 내려놓지 못하면 이 기회는 없다. 대법은 엄숙한 것이며 수련은 엄숙한 것이다.

다음으로 나는 여러분에게 또 하나 문제를 말하겠다. 바로 수련생들이 수련 중에서 줄곧 명확히 말하지 못하는 한

대법은 모든 생명으로 하여금 그가 생긴 곳으로 되돌아가게 할 수 있다. 이것은 내가 해낼 수 있는 것으로 절대적이다. 법을 바로잡는 실천 중에서 얼마나 높은 층차의 생명에든 모두 실행했다. 나의 이렇게 많은 제자 중 몇 년래 수련되어 나온 사람이 이미 무척 많은데, 원만에 이른 사람과 원만에 가까운 사람이 무척 많다. 전체적으로 이 일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모두 억제되어 있다. 그들은 일체를 알 수 있고, 일체를 볼 수 있지만, 그들의神通(神通)·법력(法力)을 드러내지 못 하게 한다. 왜냐하면, 이 지구가 받아내지 못하기 때문이다. 물론 수련생도 모두 잇따라 속속 이러한 일을 알게 되었고 서로 간에 토론과 교류를 거쳐 많은 일에 대해 더욱 뚜렷해졌다. 내가 여러분에게 이러한 문제를 말하는 것은 바로 당신이 그런 인중에 속하지 않고, 당신이 그의 세계 사람이 아니면 그가 당신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말이다.

석가모니 부처가 말하기를, 여래 부처는 갠지스 강의 모래알 수와 같다고 했다. 부동(不同)한 세계의 생명이 좋지 않게 변하면 모두 아래로 떨어지게 마련이다. 어디로 떨어지는가? 모두 우주의 중심으로 떨어지는데, 그것이 바로 가장 낮은 곳이다. 그 가장 중심이 바로 우리 이 지구이며 그것은 특수한 환경이다. 모두 여기로 떨어지는데, 그럼 곧

를 말했다. 당신들이 여기에 앉아 법을 들을 당시는 모두 아주 명백한 것 같지만, 일단 나가기만 하면 안 되고 잊어버린다.

최근 한동안, 특히 이 한두 해 사이에 수련생의 제고 폭이 아주 크고 법에 대한 이해가 갈수록 성숙한데, 이는 대단히 좋다. 대법을 전하면서, 내가 당신들로 하여금 가장 바른 수련의 길을 걷도록 이끌었기 때문인데, 법을 전하는 방식에서든, 혹은 사회상의 유전형식에서든, 내가 여러분에게 하라고 가르친 일체는 모두 가장 바른 길을 걷는 것이다. 우리가 바르면 일절 바르지 못한 것들은 우리에게 대해 아마 모두 생각이 있을 것이며 일절 바르지 못한 것들은 대법 앞에 모두 드러나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그들은 대법에 대해 반드시 일부 부면(負面) 작용을 하면서 오히려 대법이 어 떤어떠하다고 말할 것이다. 이는 틀림없다.

하지만 바꾸어 말해서, 만약 부면(負面)의 요소가 없고 이 대법이 평온하고도 평온하게 전해 내려온다면, 내가 여러분에게 알려주는데, 그것은 바로 현재의 인류 도덕수준과 같게 되는 것으로서, 그 어떤 것에 대한 현재 인류의 비난도 없을 것이다. 바로 우리가 대단히 바르게 걸었기 때문에 온갖 바르지 못한 것들이 드러나고, 당신들의 바르지 못한 것을 제거할 수 있게 되고, 속인 사회 중의 바르지 못한 일

체를 시정할 수 있게 되었다. 물론 당신들이 사회상에서 어떤 일을 하는 것은 아니다. 좋지 않은 것이 드러나면 속인 그 자신이 보아낸다. 사람에게에는 아직 선(善)한 마음이 있고, 아직 선량한 본성이 있다. 사람이 부족한 것과 잘못된 것을 보면 인류 자신도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알게 되는바, 틀림없이 속인 사회 중에서 사람의 마음을 바로잡는 역할을 할 것이다. 당신들은 수련 중에서 주로 자신이 어떻게 정진할 것인가 하는 이 면에서 노력을 많이 해야 한다. 속인 사회가 어떠한지에 관심 두지 말고, 당신들이 사회를 위해 무엇을 좀 해야 한다는 것에 관심을 두지 말아야 한다. 당신들에게는 이런 임무가 없고, 나도 여러분에게 이렇게 하라고 하지 않았다. 당신들은 수련하는 사람이므로 어떻게 자신의 心性(썸썸)을 제고할 것인가 하는 것이 바로 수련의 근본이다.

여러분이 알다시피 지금은 1억이나 되는 사람이 대법을 배우고 수련하고 있다. 이 사람 숫자 자체가 일으킨 작용이 이미 사회로 하여금 일종 사람 마음을 바로잡는 변화를 발생케 하였는데, 그것은 필연 이렇게 될 것이었다. 하지만 내가 하고자 한 것은 이것만이 아니다. 특히 유전(流傳)과정 중에 대법은 그의 마난(魔難)이 있고, 대법에 대한 속인의 비난이 있을 것인데, 여러분은 이러한 문제를 어떻게

한 문의 수련법(修法)이나 종교 간의 가장 큰 구별이다.

사실 사람은 모른다. 많은 사람이 모두 부처를 믿고 신(神)을 믿는다고 하는데, 사실 당신이 그 신의 세계 사람이 아니면 그는 당신을 아예 제도하지 않는다. 내가 예전에 말한 적이 있는데, 기독교든 천주교든 그들의 세계 속에는 동양인이 없다고 했다. 이는 절대적인 진리이며 사람은 모르는 것이다. 서양 종교는 십자군 원정을 따라 건너온 것으로서 온 것이 본래 좋지 않았다. 왜냐하면, 예수와 여호와는 예전에 모두 그의 제자가 동쪽으로 전함을 허락하지 않는다고 말한 적이 있기 때문이다. 즉 인종을 혼란케 하지 말라는 것이었는데, 그들은 그런 것을 몰랐다. 예전에 나는, 예수는 많은 위대한 형상이 있지만, 당신들은 사용하지 않고 오히려 그가 십자가에 박혀있는 형상을 예수의 상징으로 삼고 있다고 말한 적이 있다. 이것은 마치 사람이, 예수가 영원히 십자가에 못 박혀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는 것과 같지 않은가?! 사람은 그래도 자신이 좋은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사실 사람이 하고자 한 일이나 사람이 한 일이 좋은 일이 아닐 수도 있다. 왜 신이 아직도 사람을 책임지고 있는가? 왜냐하면, 사람에게 아직도 신을 믿는 마음이 있기 때문이다. 사람은 미혹 속에 있는데 사람이 무엇을 알겠는가?!

이었다. 또 당신들이 모르는, 인류가 모르는 많고도 많은 부동한 신(神)의 세계 속 생명이 대법을 얻으러 왔다. 대법은 어째서 그로 하여금 되돌아가게 할 수 있는가? 내가 진정 그를 되돌아가게 할 수 있는 이유는 내가 말한 것이 우주의 근본 대법이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어떤 세계의 법이든지 모두 우주의 부동한 층차 중에서 깨닫고 그 자신이 증오(證悟)한 이치이므로, 모두 대법과는 비교할 수 없다.

나는 왜 당신들에게 다른 것을 연마하지 못 하게 하고 오로지 대법만 수련하라고 하는가? 왜냐하면, 대법은 부동한 층차의 상황과 부동한 생명의 상황을 결합한 것으로서, 당신들이 진정하게 되돌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이다. 당신들의 선천적인 모든 것을 바꾸지 않을 뿐만 아니라, 동시에 또 당신들을 제도하여 되돌아가게 할 수 있다. 여러분이 알다시피 수련생 중 많은 사람이 스스로 그 자신이 도(道)인 것을 이미 보았고, 또 어떤 사람은 자신이 서양 신(神)의 형상이고 또한 불가의 형상인 것을 보았는데, 모두 대법 중에서 수련하고 있다. 그러나 나는 그들로 하여금 어떤 것을 잃게 하거나 혼란하게 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들이 과거에 어느 문을 수련했든지 나는 모두 그들을 제도하여 되돌아가게 할 수 있다. 이것이 유일한 방법이다. 오로지 우주의 법만이 해낼 수 있는데, 이것이 대법과 과거의 어느

대할 것인가? 수련생들에게는 속인처럼 그런 폭력적인 행동을 취하거나, 또는 무슨 당신이 나를 이렇게 대하므로 나도 당신에게 마찬가지로 대한다거나, 심지어 그보다 더하면 더했지 못하지 않다는 이런 것은 있을 수 없다. 여러분은 이렇게 하지 않았다. 여러분은 모두 선심(善心)으로 이 일체를 대했는데, 이것 또한 대법으로 하여금 건강하게 발전할 수 있게 하는 요소였다. 물론 여러분이 만나는 일체 마난 역시 당신들과 대법에 위덕을 세워주는 것이다.

여러분이 보았다시피 장래 이처럼 많은 사람이 원만을 이룰 것인데, 수련하여 원만(修煉圓滿)에 이를 것이다. 천상의 신(神)들이 물을 것이다. “당신은 어떻게 원만에 이르렀는가? 당신은 어떻게 수련해 올라왔는가? 당신은 어떤 법으로 수련해 올라왔는가?” 물론 여러분이 알다시피 소도(小道)는 사람을 제도하지 못하고, 일반적인 방법 역시 삼계를 벗어나는 신으로 사람을 제도하지 못한다. 대단히 크고, 대단히 높은 법이라야만 그만큼 큰 신으로 제도할 수 있으며, 그만큼 높은 층차의 사람으로 제도할 수 있다. 장래에 사람들이 당신이 어떻게 올라왔는지 보고자 할 때, 척 보기만 해도 대법(大法)을 수련해 올라온 자로서 손색이 없음을 볼 것이다. 이 대법 자체가 세운 위덕 역시 극히 중요한 것이다. 당신 한 사람이 잘했다면 그것은 당신 개인의

수련 문제이고, 한 지역의 사람이 잘했다면 그것은 당신, 이 지역 수련생들이 잘한 것이며, 만약 우리가 전 세계 혹은 전체 모든 대법제자가 있는 곳에서 여러분이 모두 대단히 잘했다면, 곧 한 지역 한 개인의 문제가 아닌, 전체 대법이 잘한 것이고 대법이 바르게 걸은 것이다.

다음으로 나는 또 한 가지 문제를 말하겠다. 물론 미국에도 이러한 수련생이 있지만, 아주 적으며 중국 대륙에 비교적 많다. 일부 사람은 과거에 불교 중의 거사(居士)였는데, 불교에 대해 흥미를 느끼고 있고, 또 다른 종교에 대해 흥미를 느끼고 있었다. 그는 공능 또는 다른 사람이 하는 말을 통해서, 어떤 사람이 보았거나 혹은 사회에서 유전 중인 대법(大法)이 사람을 제도할 수 있고, 현재는 이 대법만이 유일하게 사람을 제도할 수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그들도 종교 중에서 나타난 상황에 대해서 알고 있고 또한 명백해졌다. 그들도 종교는 사람을 전혀 제도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다. 신(神)도 상관하지 않기 때문에, 어떤 경서든지 그것의 배후에는 내포가 없으므로 그것은 사람을 제도하는 진정한 역할을 잃었다. 그리하여 이들은 이러한 것에 명백해진 후 대법을 배우러 왔다. 그러나 그들은 오히려 그들 원래의 그러한 것과 종교에 대한 그 집착을 근본적으로 포기하지 않았다. 그들은 원래의 것을 품은 채 대법을

빌려, 대법을 이용하여 그의 목적에 도달하고자 하는데, 이 마음은 대단히 좋지 않은 것이다. 물론 어떤 사람은 의도적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아주 노골적으로 이렇게 했다. 나는 일률적으로 그들을 모두 배척해 버렸으며 절대로 그들이 어떠한 것도 얻게 할 수 없었다. 왜냐하면, 그들은 대법을 이용하고 있는데, 이 자체가 사람으로 말한다면 대단히 좋지 못한 짓이고, 대단히 좋지 못한 마음이기 때문이다. 만약 의식이 없어서거나, 사람의 표면이 그리 명백하지 않아서거나, 흐리멍덩해서라면, 이런 사람들은 내가 가급적 그들을 바로잡아주어 그들에게 이 문제에 대해 명백해지도록 할 것이다. 내가 오늘 말한 것은 그들에게 그것은 절대 허용할 수 없는 것임을 알리기 위해서다.

여러분이 아다시피 내가 전한 것은 우주의 법이다. 어떤 법문, 어떤 한 가(家)든지 모두 이 우주 속에 포함되어 있고 또 모두 이 법 속에 포함되어 있다. 매 한 층 생명은 모두 우주 대법이 창립해 준 것이며 우주 중의 모든 세계·전체 신의 세계·부처의 세계·각 층 우주·각 층 천체(天體)가 모두 이 대법이 창립해 준 것이다. 그가 이 일체를 포함하고 있지 않은가? 대법 중의 많은 사람이 과거에 불문(佛門)의 중생이었고, 많은 사람의 생명이 도(道)였으며, 많은 사람이 서양 인종의 신(神)이었는데, 그들 세계의 생명